

완도·해남 경유 ‘서울-제주 고속철’ 건설 총력

내년 초 ‘제5차 국가 철도망 계획’ 확정
27조원 매머드 사업…국회서 토론회
항공 운송 결항 해결·사고 분산 등 필수
국가 균형발전 ‘단계별 추진론’ 제시도

완도군이 서남해권 초대형 국책 사업인 ‘서울-제주 고속철도 건설’ 사업을 ‘제5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21일 완도군에 따르면 최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박지원 국회의원을 주축으로 민홍철·민병덕·민형배·허종식·손명수 의원의 공동 주최하고, 완도군과 해남군이 공동 주관한 ‘서울-해남·완도 경유 제주 고속철도 유치 국회 토론회’가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총사업비만 27조4천억원에 달하는 매머드급 프로젝트인 서울-제주 고속철도(연장 178km)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대내외에 공표하고, 이를 국가 최상위 계획에 포함시키기



완도군은 최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서울-해남·완도 경유 제주 고속철도 유치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은 토론회를 마친 후 신우철 완도군수와 박지원 국회의원 등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완도군 제공>

위한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지원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서울-제주 고속철도는 해남과 완도에 국한된 사업이 아니라 진도, 영암, 무안 등 전남 서남부권 전체, 나아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 마중물”이라며 “전 구간 동시 착공이 어렵다면 목포에서 영암,

해남을 거쳐 완도까지 이어지는 ‘1단계 구간’만이라도 우선 추진해 국가 균형발전의 큰 그림을 그려 나가기 바란다”고 현실적인 단계별 추진론을 제시했다.

주제 발표에 나선 김시곤 서울과학기술대학 교 교수는 데이터에 기반한 논리로 사업 타당성

을 뒷받침했다.

김 교수는 ▲한반도 서부 축의 고속 교통망 완성 ▲기상 악화로 인한 항공 운송의 잦은 결항 문제 해결 ▲항공·여객 사고 위험 분산 등을 근거로 들며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라 복수의 교통 수단을 확보하는 차원에서라도 고속

철도는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해남과 완도를 경유할 때 사업의 경제적·사회적 효과가 극대화된다”고 분석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강승필 고양도시공사 사장을 좌장으로 6명의 교통·철도 전문가들이 패널로 나서 고속철도 건설에 따른 기대 효과와 구체적인 추진 전략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 완도군은 이번 토론회에서 도출된 전문가들의 의견과 논리를 바탕으로 국회 및 국토교통부 등 중앙정부에 사업의 시급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다.

특히 내년 초 확정될 예정인 ‘제5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에 해당 노선이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고속철도가 연결되면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돼 주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인적·물적 교류 확대로 지역 경제에 엄청난 활력이 될 것”이라며 “특히 완도가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해양치유산업과 웰니스 관광도시에 날개를 달아, 국내를 넘어 글로벌 도시로 도약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완도=윤보현 기자

영광군 ‘RE100 산단’ 조성 후보지 선정 착수

착수보고회, 신산업 발굴 등 논의
재생에너지 기반 기업 유치 기대

영광군이 풍부한 재생에너지 잠재력을 바탕으로 ‘RE100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본격적인 밑그림 그리기에 나섰다.

21일 영광군에 따르면 최근 군청 2층 소회의실에서 ‘영광 RE100 산업단지 후보지 선정 및 기본구상 용역 착수 보고회’를 개최하고 사업 추진에 시동을 걸었다.

이번 용역은 글로벌 탄소 규제 강화에 대응하고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

해 마련됐다.

보고회에서는 ▲중앙정부의 신산업 육성 전략 및 RE100 정책 동향 분석 ▲영광군의 혁신성장 경쟁력 진단 ▲신산업 발굴 및 입주 수요조사 ▲최적의 산업단지 후보지 선정 및 비교·분석 등 종합적인 과업 수행 계획이 보고됐다.

특히 회의에서는 단순한 조성을 넘어 실질적인 성공을 담보할 ‘단계별 사업화 전략’과 ‘주민 수용성 확보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참석한 실과소장들은 질의응답을 통해 기업 유치의 핵심인 안정적인 용수 공급 방안과 경쟁력 있는 재생에너지 공급 단가 결정 등 구체적인 현실적인 쟁점 사항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며 열린 토론회를 벌였다.

영광군은 이번 용역을 통해 실행 가능한 정교한 로드맵을 수립하고, 중앙정부 정책과 연계한 전략적 기업 유치전에 뛰어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미래 성장 동력을 선점한다는 구상이다.

영광군 관계자는 “RE100 산업단지는 기후 위기 대응은 물론 국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과제”라고 강조하며 “정부의 제도적 지원이 본격화되는 지금이 바로 골든타임인 만큼, 영광만의 풍부한 자원과 입지적 강점을 살려 신재생에너지 선도 도시로서 주도권을 확실히 잡겠다”고 밝혔다. /영광=김동규 기자

고경욱 “‘깜깜이’ 민간위탁 투명성 확보해야” 최지선 “법정·필수경비 과소계상 시정 필요”

목포시의회 5분 발언 등서 지적

목포시의원들이 시정 전반에 대해 날카롭게 비판했다.

21일 목포시의회에 따르면 고경욱 의원은 최근 제40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민간위탁 사무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방안을 강력히 주문했다.

고 의원은 “민간위탁 사업 위탁료가 연간 약 236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규모임에도 조례에 규정된 지도·감독과 감사, 성과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의문이다”고 꼬집었다.

이어 “민간위탁 시 시의회에 사전 보고하고 동의를 구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의회가 바로잡은 사례가 있었다”며 “집행부는 업무 추진 시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의원은 “현행 조례에는 수탁기관 선정심 의위원회 구성에 대한 조항만 있고 구체적인 방법이 빠져 있다”고 지적하며 “행정의 공정성을 위해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처럼 인터넷 공고 등을 통해 위원을 공개 모집하는 방식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앞서 최지선 의원은 제39회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목포시의 반복적인 법정·필수적 경비 과소계상 관행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최 의원은 “법정·필수적 경비는 세출예산에



고경욱 의원

최지선 의원

우선 계상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결산 지적과 시정 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은 것은 예산 편성의 책임성과 신뢰성을 스스로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회가 반복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음에도 동일한 예산 편성 방식이 되풀이되는 것은 결산 제도의 실효성을 무력화하는 것”이라며 “집행부는 즉각 예산 편성 관행을 개선하고 법과 기준에 부합하는 책임 있는 재정 운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목포=정해선 기자

서울 성수동 홀린 ‘진도 곱창김’…사흘간 6천명 발길

MZ세대·외국인 등 취향 저격

체험형 팝업스토어 ‘대박’ 행진

진도군의 명물 ‘곱창김’이 서울의 핫플레이스 성수동을 뜨겁게 달궜다.

21일 진도군에 따르면 최근 서울 성수동에서 운영한 ‘진도 곱창김 팝업스토어’가 사흘간 약 6천명의 방문객을 끌어모으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번 행사는 진도군이 ‘김 산업 진흥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추진 중인 브랜드 경쟁력 강화 사업의 일환이다.

단순한 판매 위주의 홍보에서 벗어나, 소비트렌드를 주도하는 MZ세대와 ‘K-푸드’에 관심이 높은 외국인들에게 진도 김의 매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획했다. 그 결과 영하의 강추위 속

에서도 현장에는 하루 평균 2천여명의 인파가 몰리며 연일 인산인해를 이뤘다. <사진>

‘데토김, 애견밥’을 주제로 꾸며진 팝업스토어는 ▲김 바벨 돌기 ▲사이클 체험 등 젊은층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이색 이벤트로 가득 찼다.

특히 곱창김 특유의 오돌토돌한 두께와 결을 소비자가 직접 만져보고 일반 김과 비교해 볼 수

있는 체험존은 방문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현장 만족도 조사 결과 응답자의 90%가 “곱창김의 주산지가 진도임을 확실히 알게 됐다”고 답했으며, 85%는 “진도 곱창김의 맛과 품질이 우수하다”고 평가했다.

방문객들은 “진도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된 계기였다”, “곱창김과 일반 김의 차이를 확실히 느꼈다”, “김 하나로 이렇게 재미있는 공간을 만든 것이 신선하다” 등 긍정적인 반응을 쏟아냈다. /진도=박세권 기자



대한민국수산물 제16호 선정된 최태근(사진 오른쪽)장인과 8대째 전통방식으로 만들어오고 있는 어란. <영암군 제공>

영암 어란 최태근 장인, 제16호 수산물식품명인 지정

8대째 전통 제조…미술쟁 세프 극찬

영암에서 8대째 전통 어란(임금님 진상품) 제조 기술의 명맥을 이어온 최태근 장인이 국가가 공인하는 ‘명인’ 반열에 올랐다.

21일 영암군에 따르면 최태근 장인은 지난 18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해양수산부 주관 ‘대한민국 수산물명인 지정서 수여식’에서 ‘대한민국 수산물식품명인 제16호’로 지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대한민국 수산물식품명인은 우리 수산식품의 전통성과 우수성을 계승·발전시키고 있는 장인을 해양수산부 장관이 직접 지정하는 제도로, 해당 분야 최고의 권위를 자랑한다.

최 명인은 수십년간 숨어 알을 소금에 절인 뒤 영암의 바닷물과 햇빛으로 천천히 건조·숙성시키는 전통 방식을 고수해 왔다.

기계적인 건조가 아닌 자연의 힘으로 빚어낸 그의 어란은 특유의 쫄쫄한 식감과 깊고 고소한 감칠맛이 일품으로, 지역 고유의 식문화를 온전

히 보존해 온 공로를 높이 평가받았다.

영암 어란은 예로부터 맛과 풍미가 뛰어나 임금에게 진상되던 귀한 음식으로, 최근 그 가치가 재조명되며 미식가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실제로 지난 4월에는 한 유명 미술쟁 세프가 최 명인의 영암 어란을 활용한 파스타 요리를 유튜브에 선보여 화제를 모았다. 해당 영상은 조회수 169만회를 돌파하며 영암 어란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됐다.

군은 이번 명인 배출을 계기로 지역 전통 식품과 장인의 가치를 체계적으로 기록·보존하는 한편, 영암 농수산식품의 브랜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영암군 관계자는 “최 명인의 지정은 영암의 전통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 쾌거”라며 “내년 상반기에는 온라인 쇼펄물 ‘영암물’ 입점을 추진해 전국 소비자들에게 명인의 손맛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영암=나동호 기자

함평군, 국제농업박람회 성공 기여 ‘최우수상’

애호박 부스·미니정원 등 호평

함평군이 대한민국 농업 축제의 장에서 탁월한 기획력과 운영 능력을 인정받으며 ‘농업·축제도 도시’의 위상을 다시 한번 드높였다.

21일 함평군에 따르면 최근 전남농업기술원에서 열린 ‘2025 국제농업박람회 성공개최 기여 종합 평가’에서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는 지난 2023년에 이은 2회 연속 수상이다.

올해 국제농업박람회는 지난 10월23일부터 29일까지 ‘농업이 세상을 바꾼다’를 주제로 25개국 380여개 기관·단체가 참여한 국내 최대 규모의 농업 행사로 치러졌다.

이번 평가에서 함평군은 ▲시군 홍보 부스 ▲함평 애호박 야의 홍보 부스 ▲남도 미니정원 조성 등 3개 분야에서 차별화된 콘텐츠를 선보여 높은 점수를 받았다. <사진>

특히 지역 특화 작목인 ‘함평 애호박’을 활용한 요리 시식과 체험 프로그램은 관람객들의 호감을 만족시키며 지역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효과적으로 알렸다는 평이다.



또한 군은 자체 캐릭터인 ‘황박이’ 포토존을 설치하고 SNS 해시태그 이벤트를 진행해 젊은 층의 발길을 사로잡았으며, 함평의 상징인 나비와 국화, 아쿠아포닉스(물고기 양식과 수경 재배를 결합한 농업)가 어우러진 ‘남도 미니정원’은 관람객들에게 힐링 포토존으로 큰 인기를 끌었다.

함평군 관계자는 “이번 최우수상 수상은 농업인과 군민, 관계 기관이 한마음으로 노력해 이뤄낸 값진 성과”라며 “앞으로도 함평 애호박 등 지역 농특산물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실질적인 농가소득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함평=기영규 기자